

‘서방 vs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러싸고 무력 과시

미 항모 지중해 훈련 참가
냉전 종식 이후 첫 사례
러-동맹국 대규모 군사동원
중국과도 연합작전 진행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대치 중인 서방과 러시아가 유럽 안팎에서 잇따라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서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24일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중해에서 진행 중인 ‘넵툰 스트라이크 22’ 훈련에 자국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 호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참가시켰다.

젠 자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당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 “나토가 가진 최고 수준의 해상 타격 능력을 선보이도록 기획됐다”고 말했다.



대전차무기 사용법 교육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리비프에서 한 영국군 교관이 자국이 제공한 차세대 경량 대전차 무기(NLAW) 사용법을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제공

그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 항공모함이 나토 지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훈련은 범대서양 연합의 통일성과 능력, 힘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해상 기동과 반잠수함 전술, 장거리 타격 훈련 등으로 구성된 이번 훈련은 약 2년 전부터 기획됐다.

미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해당 병력은 필요시 나토 신속대응군(NRF)에 편제돼 동유럽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시에는 통상 10일의 준비기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병력의 준비기간이



모스크바 인근 전투 훈련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인들이 수도 모스크바 인근 한 훈련장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 제공

5일로 단축됐다. 미국은 이에 더해 최근 2억 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승인하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대전차 미사일 등 군사원조 물자를 전달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군사 대비태세 강화에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직접 파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조처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볼륨버그 통신은 해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서방이 꾸며냈다고 주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육해공군을 모

미군을 직접 파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조처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볼륨버그 통신은 해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서방이 꾸며냈다고 주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육해공군을 모

두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남서부와 서부 지역 부대들에 실탄을 동반한 훈련을 개시할 것을 지시했다.

남부군관구에서는 6,0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됐고, 흑해함대에 속한 수호이(Su)-27SM과 Su-30SM2 전투기, Su-34 전폭기 등으로 이루어진 비행대도 훈련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서부군관구 소속 부대들도 1,000명 이상의 병력과 약 100대의 군사장비를 동원해 이달 29일까지 훈련을 벌인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동맹국 벨라루스와 내달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병력과 무기를 벨라루스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내달까지 지중해, 북해, 오호츠크해, 대서양 북동부, 태평양 등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할 예정이다.

해상 훈련에는 140척 이상의 함정과 지원함 등이 참가한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주요 우방인 중국과도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아라비아해 서쪽 해역에서 전술기동과 남지 선박 수색 등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얀마사태 평화해결 촉구”

인니-싱가포르 정상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리센 룡 싱가포르 총리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2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과 리센 룡 총리는 전날 인도네시아 빈탄섬에서 만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간 범죄인 인도조약과 영공협정, 방위협정 체결을 참관했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항 합의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작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부정선거 등을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을 구금한 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가장 적극적으로 아세안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즉각적인 폭



25일(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리센 룡 싱가포르 총리가 범죄인 인도조약과 영공협정, 방위협정 체결을 참관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력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항이 채택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5개항은 아세안 차원의 결정이며,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며 “아세안이 미래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단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센 룡 총리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 의장과 특사가 모든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미얀마 국민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관심사라며 “평화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발생 후 군정의 발표와 폭력에 시인 1,493명이 숨지고 1만1,000여명이 체포됐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31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행 후 18년까지 양국 간 요청에 따라 신병 인도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확진자 6만명대 일본, 접종률 OECD 최하위

목표 달성률 16% 그쳐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 3차 추가 접종(부스터샷)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의료종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1,470만명을 접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현재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236만명으로 목표 달성률이 16%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당초 2차 접종 후 8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 3차 접종을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하자 부스터샷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접종 간격을 의료종사자와 고령자는 6개월, 64세 이하는 7개월로 각각 단축한 바 있다.

현재 3차 접종은 의료종사자와 요양 시설에 입소한 고령자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의 목표 달성률을 보면 도쿄도가 16.8%, 오사카부 12.4%, 가나가와현 12.8% 등이다.

가나가와현 지시시 담당자는 3차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자 시설 입소자 중에는 치매 등으로 (접종)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며 “(접종 일정을) 앞당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데 접종 대상자 가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동의를 얻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 담당자는 토로했다.

의료종사자 중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자신이 진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접종을 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나라현의 한 의료종사자는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접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신문도 이날 “백신 3차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능하면 64세 이하 3차 접종 간격을 6개월까지 단축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부스터샷 접종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NHK 집계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2,613명으로 처음으로 6만명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시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